
祝 辭

2018. 7. 11.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 종 구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2017년 많은 기대를 받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개시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산업 내 경쟁과 서비스의 편의성 등에 미친 역할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토론을 통하여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입법방향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정책·입법을 지원해 주시는
민병두 의원님과 정재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홍영표 원내대표님과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및 인터넷전문은행 등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4차 산업혁명와 패러다임의 변화

모바일, 온라인, 연결·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은
아날로그, 오프라인, 대면거래 등에 기초한
기존 경제시스템에
근본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사회에서도
‘기존의 제도’와 ‘시대적 요구’ 간의 충돌에 따라
시스템 재설계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확산과 기존산업 보호의 문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기술-금융의 융합과 금융규제 원칙 유지의 문제
등이 그러한 사례입니다.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경제시스템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회갈등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의 탄력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냐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III.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필요성

한국경제는 그간 산업화와 정보화 혁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시스템 경쟁력을 높이면서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초연결사회(Superconnected Society)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도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① 혁신성장과 인터넷전문은행

정부는 국가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혁신성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혁신 핀테크 서비스는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우리 생활을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모바일 간편결제 등의 서비스는 은행의 전통적인 서비스 행태를 변화시켰고,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등도 증권사, 자산운용사의 서비스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1년전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ICT기술을 기반으로
간편송금, 24시간 거래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의 개척자(Pione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핀테크 생태계의 중심에서
다른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는 온라인플랫폼 기업(티몬 등)과 협업하여
쇼핑몰로 판매·홍보채널의 확대를 추진중이고,
카카오뱅크는 디지털보안 기업(인지소프트 등)과 협업하여
비대면 실명확인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② 글로벌 핀테크 경쟁

새로운 ICT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핀테크는
많은 나라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EU, 일본은 물론 중국 등 경쟁국들은
혁신 ICT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IV.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그간 우리 국회와 정부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은산분리 정책방향에 대한 고민으로
입법화가 진전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회사의 대기업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는
은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자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규제원칙입니다.

돌이켜보면 은산분리는
국유화되었던 시중은행들을 민영화는 과정에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반영하여
1982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금수요에 비해 공급이 항상 부족*했고
대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자금을 독점하던 시대였습니다.

* 제조업 부채비율 : '82년 385.8% → '16년 79.8%

하지만,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원칙 적용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되었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되었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습니다.

은산분리 도입 당시보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만큼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성장한 세대를 의미하는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는
기존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금융산업도 시대의 변화와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나가야 합니다.

* 2001년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Mark Prensky)가 처음 언급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있고,
청년들이 그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은산분리는 금융산업의 기본원칙으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국회에 다양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동 법안들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순기능을 살리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열린 마음으로 토론이 진행되어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되고,
국회의 법안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